

참 모습으로 돌아간 고승들의 가르침 참되게 배워라



39 땅끝에서 크게 흥한 도량 대흥사

“내가 죽거든 나의 의발(衣鉢)은 반드시 해남으로 돌려보내도록 하라. 이 지방에는 산이 있으니 두륜산이고, 절이 있는데 그 이름이 대문사(大菴寺)니라. 거기서 남쪽을 바라보면 달마산이 있고, 북쪽으로는 월출산이 있으며, 동쪽에는 천관산이 있고, 서쪽에는 선은산이 있다. 이 산들은 내가 참으로 좋아하는 산들이다. 해남 지방은 척박하며 황폐한 곳이어서 왕화(王化)가 미치지 못하며 민속이 우매하다. 내가 이렇게 당부하는 것은 이를 보고 감화되어 나라에 충성할 마음을 일으킬 수 있기를 바라고서 때문이다. 그렇게 된다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해남 대흥사에 있는 서산대사 표충사(表忠祠) 기적비문에는 청허당(淸虛堂) 휴정(休靜 1520~1604) 스님의 의발이 대흥사에 모셔지고 표충사가 건립된 배경이 자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서산대사 휴정 스님은 임진왜란 때의 승병장으로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지만, 선승으로서 학승으로서 당대 최고의 경지를 보였던 회대의 결승입니다. 그러기에 풍전등화의 국난을 맞아 변연히 일어나 나라를 지키는 일에도 승도(僧徒)의 길이 있음을 보였던 것입니다.

대흥사가 대흥사가 된 이유는 바로 서산대사의 의발이 봉안된 데서 비롯됩니다. 비문에 나오다시피 당시의 절 이름은 대문사였습니다. 절을 품은 산 이름이 원래 대문산이었다가 두륜산(頭輪山)으로 바뀌었는데 절 이름은 대문사로 남아 있다가 서산대사의 의발이 봉안된 뒤로 선교를 막론하고 여러 명의 종장들이 배출되어 ‘크게 흥함’을 뜻하는 대흥사로 바뀐 것입니다.

비문을 의지하지 않는다 하여도 당시 해남은 반도의 최남단에 위치해 중앙정부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었고 왜구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곳입니다. 그러한 척박한 곳에 자신의 의발을 두게 한 서산대사의 마음을 헤아려 봅시다.

평생 수행자로 살았고 한낱의 닭 울음소리에 환연대오(儼然大悟)하여 천지에 막힘이 없었던 고승은 ‘죽어서 다시 사는’ 원력을 보였던 것입니다. 묘향산 원적암에서 입적(入寂)한 당대 최고의 스승이 가장 멀고 척박한 곳에 자신의 법을 상징하는 의발을 두라고 했으니 그보다 큰 법문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원력을 하늘을 감동시키고 땅을 진동케 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흥사는 수많은 선지식들을 길러내는 옥토(沃土)가 되고 있으니 불일증취(佛日增輝) 법륜상전(法輪常轉)은 이를 두고 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흥사 부도밭은 일주문을 지나 오른쪽에 있습니다. 대흥사가 배출한 결승들의 부도 54기와 27기의 탑비가 무언의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부도들은 대



대흥사 부도밭.

개 조선 중기 이후를 살다간 고승들이 주인이고 조성 솜씨는 신라와 고려시대에 미치지 못하지만 순박한 정성이 한껏 묻어 경건함을 더해줍니다.

뒷줄 가운데 서 있는 서산대사의 부도(보물 제 1347호)는 팔각의 몸통에 ‘청허당’이란 세 글자를 새기고 있습니다. 탑비는 그 옆에 있는데 몸통이 정사각형이고 낮게 엮드린 거북은 머리를 앞으로 쪽 내밀었습니다. 이주는 사각의 갖머리 위에 연꽃을 올린 모습입니다. 부도의 지붕돌은 단정하면서도 화려한 기품을 드러내고 있으며 귀마루에는 귀꽃을 대신하여 용머리와 원숭이, 양 등이 모각되어 있습니다. 그 위를 장식한 상륜부에 구름 속을 노니는 네 마리의 용이 엮여 있는 모습은 상서로운 기운을 풍기고 있으니 서산대사의 풍모가 거기서 드러납니다.

팔각의 고임돌 위에 다시 팔각의 하대석을 올리고 복련의 각 면에는 안상을 표현했는데 용의 몸통이 유려합니다. 중대석은 모서리마다 사자와 원숭이 등의 동물상이 표현되고 중앙에는 운문문이 화려합니다. 무엇보다 소담스런 한 송이 연꽃을 받쳐 올린 듯한 상대석에는 거북과 꽃게를 새겨 넣어 독특합니다. 거북과 꽃게 등의 문양은 대흥사 부도밭의 다른 부도와 탑비는 물론 인근 미황사의 부도밭이나 대흥보전 주춧돌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서산대사의 부도 앞에는 대흥사가 배출한 또 한 분의 결승 초의(草衣 1786~1866) 스님의 부도가 탑비와 함께 서 있습니다. 지대석 위에 사각의 고임돌을 올리고 다시 안상에 툇고기 문양을 새긴 사각의 고임돌을 올렸습니다. 그 위에 다신(茶神)으로 살았던 스님의 생애처럼 동그런 몸돌이 놓이고 그 가운데 ‘초

의담’이란 세 글자가 신령스러움을 표현한 곡선문양 속에 음각되어 있습니다. 지붕돌과 상륜부는 크게 문양을 넣지 않았으니 이 역시 검박한 다승(徒僧)의 풍모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옆에 탑비가 서 있는데 조각을 하지 않은 막돌을 비좌로 삼았는데 돌 모양이 꼭 거북을 닮았습니다. 역시 초의 스님의 풍모가 그렇게 드러나고 있음에 웃기를 어찌겠습니까.

서산대사에서 초의 스님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을 생각합니다. 부도밭의 가운데에는 서산대사의 부도와 초의 스님의 부도 그리고 풍담 대종사(1592~1665), 월재대종사(1638~1715), 연담유일대

서산대사 이후 선과 교학의 고덕들 부도 준비

화려함 보다는 질박한 솜씨로 정성 담아 ‘경건’

종사(1720~1799)의 부도 등이 탑비와 함께 서서 결승들의 법향을 풍기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척박한 땅에 법의 비를 내려 기뻐진 불국토로 가꾼 명장들인 것입니다.

서산대사가 변방의 작은 절 대문사에 의발을 두게 하여 불법(佛法)의 햇빛이 찬란하게 빛나도록 한 이래 대흥사는 명실공히 선교의 총본산이 되었고 13명의 대종사와 대강사가 배출되었습니다. 부도밭 오른쪽 어귀에 길쭉한 돌기둥 하나가 서 있는데 거기 큼직하게 ‘13대강사도량’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부도밭 위의 반야교를 지나면 오른쪽 바위 위에 또 하나의 돌기둥이 있고 거기에는 ‘13대종사도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 도량에서 13명의 선사와 강사가 배출되었다는 것은 서산대사가 선교를 틀로 나누지 않았던 기풍을 그대로 현현(顯現)한 것입니다.



서산대사 부도.

서산대사를 뿌리로 하는 그 문도들은 사명당 유정(惟政 1544~1610)계와 편양언기(鞭羊彦機 1581~1644)계, 소요태능(遯遙太能 1562~1649)계, 정관일선(靜觀一禪 1533~1608)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편양언기와 소요태능의 문파가 대흥사를 중심으로 법손을 융성하게 하여 13명의 선사와 강사를 낳았습니다.

13명의 대종사에서 13번째 대종사가 초의 스님입니다. 그리고 13번째 대강사는 <동사열전>의 저자 범해각안(梵海覺岸 1820~1896) 스님입니다. 범해 스님은 경술론 삼장에 능통하고 유교와 도교의 외전들에도 막힘이 없어 승가와 불자는 물론 유학자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다고 합니다. <동사열전>은 삼국시대에서 조선말까지의 스님들의 법맥과 수행가풍 등을 소개한 명저입니다.

범해 스님은 <동사열전>에서 초의 스님을 ‘초의 선백전(草衣禪伯傳)’이라는 제목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님은 선교의 학문뿐만 아니라 유학과 도교 등 제반 학문에까지 조예가 깊었으며 범서(梵書)에도 능통하였다. 원호 스님의 조실에서 항을 사르고 법맥을 이었으며 금담조사에게 선법을 전수받았다. 스님은 이후 금강산 지리산 한라산 등 명산을 유람하는 한편 정약용 신의 홍석주 김경희 윤치영 등 당대의 대학자들과 폭넓은 교류를 가졌다.”

대흥사 부도밭의 맨 오른쪽에 그리 오래되지 않은 부도 하나가 서 있습니다. 초의 스님의 다맥(茶脈)을 이었고 일제에 맞서 독립운동을 했던 응송(應松 1893~1990) 스님의 영골이 안치된 부도입니다.



대흥사 표충사의 서산당 휴정대좌화상 진영.

대흥사 부도밭으로 들어가는 낮은 대문에는 ‘진화문(眞化門)’이란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부도밭이 죽음을 공간이 아님을 강하게 어필하는 이름입니다. 죽음을 넘어 참된 세상으로, 참된 모습으로 된다는 것이니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진실과 거짓의 그늘을 벗어나기 힘듭니다. 선과 악의 두 극단을 초월하는 힘이야말로 수행의 궁극일 것입니다.

살아 있는 동안의 수행이 몸을 벗어 던지고 난 뒤에 ‘진화(眞化)’가 되거나 ‘가화(假化)’가 되거나 둘 중 하나일 텐데 우리는 오늘도 얼마나 많은 거짓과 악의 꿀물을 빨아먹고 있는지 살펴볼 일입니다. 서산대사가 입적을 앞두고 자신의 영정에 ‘80년 전에는 그대가 곧 나였는데, 80년 후에는 내가 곧 그대일세.’ 라고 쓴 뜻을 화두로 간직해야 하겠습니까.

부도 앞에 정사각형으로 세워진 ‘청허대사비’의 비문에는 국난(國難)을 당하여 승려가 칼을 들고 적을 살생한 데 대한 ‘계율논의’를 일축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논쟁은 유학자들 사이에서 더 많았고 비문을 지은 장유원(張維 1587~1638) 역시 흥문관 대재학 신분이었습니다.

“피상적으로만 보는 소극적인 인사들은 간혹 스님에 대하여 세속적인 일에 치우쳐 의승병을 규합하여 왜적과 싸워 많은 희생을 내게 하였으므로 계율정신에 위배된 일이 아닌가라고 의심도 하지만, 그러나 식견(識見)이 있는 사람들은 스님이 호국을 위해 퇴적(退跡)한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여기지 않았다.”

오늘날에도 식견이 없는 사람이 부지기수여서 큰 것을 보려하지 않고 말단지엽(末端枝葉)에 걸친 잇속을 위해 ‘대의(大義)’로 가장하고 전체를 들쭉수는 일이 허다합니다. 우리 사회를 틀로 나누고 있는 보수와 진보 사이에도 ‘진화문’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겠습니까.

임연태 (시인 · 본지는설위원)

www.buddhashopping.com
NAVER **7월 4주** 붓다쇼핑 응 처분

백종 영가욱

B형-남자 구성 : 상의(저고리,바지), 양말, 봉투
B형-여자 구성 : 상의(저고리,치마), 버선, 봉투

종이영가욱A형-남/여	할인가 2,200원	정가 1,500원
종이영가욱B형-남/여	할인가 2,100원	정가 1,300원
종이영가욱C형-남/여	할인가 950원	정가 1,200원
종이영가욱-동남/동녀	할인가 800원	정가 1,000원
종이영가욱-수자	할인가 600원	정가 800원
영가천도다라니	할인가 800원	정가 1,000원

※ 종이영가욱은 한벌씩 봉투포장되어 있습니다.
A형은 B형구성에 더하여 신묘장구부여, 진언부적, 백만관 3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인가 1,000 (100벌 이상)

B형-남

법화경 사경책 시리즈

※ 우리말로 해석된 경전사경책은 금강경 1권, 지장경 2권, 법화경 7권(한문/한글/우리말)이 있습니다. 연하게 인쇄된 밑글씨를 따라 사경할 수 있는 우리말 풀이 사경책 시리즈입니다.

한문	한글	우리말
11~17호	19~25호	34~40호
할인가 4,200원(1권) 정가 6,000원(1권)	할인가 3,500원(1권) 정가 5,000원(1권)	할인가 2,100원(1권) 정가 3,500원(1권)

지지

한지집은 영가욱(남)/영가욱(여)/위패 30,000원 (100개)

예수재함A (50개) 50,000원 (1박스)

행복으로 가는길 3,000원

자비도량참법 9,000원(20권이상)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상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8cm]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6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빠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로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의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연분삼**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